

현대차, 싱가포르 국민택시로 급부상

컴포트 델그로社에 아이오닉 HEV 2천대 공급 계약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 친환경 택시 시장을 이끄는 키 플레이어(Key Player)로 위상을 강화한다.

24일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싱가포르의 최대 운수기업인 컴포트 델그로(Comfort Drive)와 택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총 2천대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택시를 공급한다.

현대차는 이번 계약으로 올 연말까지 1500대, 내년 상반기까지 500대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컴포트 델그로社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컴포트 델그로社와 체결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1200

대 공급계약보다 800대 늘어난 규모다.

현대차그룹 정이선 수석부회장은 현지 컴포트 델그로社 경영진을 만나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협의했다.

최근 개최된 현대차 전세계 대리점대회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정이선 수석부회장은 현지에서 컴포트 델그로社 경영진들과 만나게 됐다.

컴포트 델그로社는 1970년 설립된 싱가포르 최대 운수사업 그룹으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60%(1만 2천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영국, 베트남 등에서도 택시 사업을 운

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컴포트 델그로社에 지난 2007년부터 쉐보레(NF), 이코닉, 엑센트(GD) 등을 판매해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공급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해 왔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2천대 공급 계약을 포함 싱가포르 택시 시장 진출 13년만에 누적 2만 6천여대의 택시를 판매하게 됐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운행 중인 2만여대의 택시 중 현대자동차가 50%(1만 2천여대)를 차지하는 등 현대차는 싱가포르 택시 시장에서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컴포트 델그로社는 지난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처음 공급받아 택시로 운영하면서 경제성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에 크게 만족함에 따라 이번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공급 계약 체결로 싱가포르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선호하는 업체로 한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시아 금융, 유통의 허브이자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싱가포르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택시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택시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며 "현대차의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양파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전주농협협동조합, 양파 판촉활동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도농상생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운주농협(조합장 윤여섭)과 손을 잡고, 청정지역인 운주농협 관내에서 생산된 양파를 전주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신성점, 아중점)를 통해 직거래 판촉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호응이 좋아 판촉활동 기간중 10kg들이 한 만에 4800원씩 총 1000망을 판매했다.

특히, 양파는 예로부터 혈관의 확장 및 수축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등 각종 심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며 고혈압에 효능이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은 궁극적으로 재배 받는 농산물을 많이 팔아 주는데 있다고 본다”며, “양파 가격하락에 따른 양파 생산농가의 시름을 공감하며, 수

매물량과 수출을 확대하고 도농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는 등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작황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인 만큼 양파의 품질이 예년에 비해 좋다”며 “농촌이 건강한 농산물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양파소비를 평소보다 조금 더 늘려 주면 감사하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협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전사적으로 양파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전주농협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양파를 대만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도 자체 하나로마트는 물론 다른 대형마트에 납품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주농협 기획총무부(287-8111), 기획총무부 팀장 배범모 (☎ 230-6711)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전복, 장마 대비 배수장 특별점검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에 신속하고 정확한 배수장 가동을 위해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최근 침수피해 발생시설 및 시설하우스가 많은 배수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특별점검'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전북 관내 농업기반시설(수원공)은 1953개소로, 주요현황을 보면 양수장 559개소, 배수장 58개소, 양·배수장 13개소, 대형관정 253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전북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71개 배수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름철 집중호우 배수장 가동훈련을 진행 한 바가 있다.

특별점검은 최근 5년 이내 침수피해가 있었던 지역 및 시설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배수장 27개소에 대하여 본부 및 지사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비상사태시 시설물의 정상가동과 위기관리 대처 능력 제고, 직원 안전관리 교육 등을 점검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강환 본부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기전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적기에 배수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치와 배수로 퇴적물, 수초제거를 사전에 완료하여 농업인들의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하립 피오봉사단이 최근 올해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서울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에서 환경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생에너지 체험하고 나무도 심고... 지구야 고마워!”

하립 피오봉사단, 올해 첫 환경봉사 성료

종합식품기업 (주)하립의 소비자 가족봉사단 피오봉사단이 최근 올해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서울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에서 환경 봉사활동을 펼쳤다.

하립의 소비자들로 구성된 피오봉사단과 이른 아침부터 전북 익산에서 온 하립 임직원 총 70여 명은 먼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방문해 환경교육을 받았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건물이다. 피오봉사단과 하립 임직원은 전문강사의 설명과 함께 건물 곳곳에 적용된 핵심 기술을 체험하고 공공 건축물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자연과의 상생을 중시하는 피오봉사단은 에너지드림센터 견학 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월드컵공원 일대로 이동해 환경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쓰레기매립지에서 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노을공원에 묘목을 심고 도토리 씨드뱅크를 설치했다. 도토리 씨드뱅크는 친환경 휴가 뿌리가 발아한 도토리열매를 함께 넣은 지루다. 건강한 흙이 토지를 정화하고 도토리씨앗이 묘목으로 성장해 도심 속 폭염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하립 피오봉사단 6기 배민경씨는 “이번 활동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무척 유익했다”며 “노을공원에 직접 참나무를 심고 도토리 씨드뱅크를 설치하는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환경을 위한 나무심 조성에 기여하는 뜻 깊은 특별한 시간이었”고 말했다.

피오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길연 하립 대표는 “지난 2014년에 창단되어 올해로 6기를 맞이한 피오봉사단의 올해 첫 오프라인 봉사 활동을 성황리에 마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립 피오봉사단은 올해도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동물사랑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 대회 성료... 선수 1100명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2일~23일 이틀 동안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제17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배드민턴 대회는 처음으로 전주를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 지역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전라북도 배드민턴협회에 가입된 109개 클럽에서 630팀 1,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등급 및 연령대별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각 종목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선수들은 모두 값고 닭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 했으며, 개인전으로 각급수별 우승은 65팀이며, 경기 종료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가졌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인 배드민턴을 통해 개인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군산에서 개최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지역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창립 58주년 기념 고객사은 예금 판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7월 31일까지 농협 창립 58주년을 기념해 '고객사은 큰만족실세예금'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예금은 NH스마트뱅크,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해 최소 가입금액 300만원부터 최고 금액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고 만기기간이 12개월인 단일 상품이다.

연 2.1%확정금리(세전)를 제공하며, 총 판매한도 20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농협 창립 58주년을 맞아 농협은행을 이용하고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사은예금을 마련했다”며, “고객사은예금과 같이 비대면 채널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특판예금, 모바일소액대출 등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